

방학 중 초등돌봄 급식 필요성 공감... 시행은 입장차

제주도교육청, 4일 ‘방학 중 돌봄 급식 운영’ 토론회
학부모 “소규모부터”... 종사자 “현 체계로는 어려워”
교육청 책임·역할 주문도... 해법 마련까지 진통 예상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에서 안정
적인 식사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급식 시행 가능
여부를 두고는 입장 차이가 컸다.
소규모 학교부터 시행해 보자는 의
견이 있는가 하면, 선부터 시행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일 제주교
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초등돌
봄 방학 중 급식,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선 이
같은 입장 차가 드러났다. 단기간
에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재인숙 제주대학
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
아 자율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

월 기준 도내 초등학교 112곳(분교
장 포함)에서 초등돌봄이 운영 중
이다. 초등돌봄 대상인 1~2학년
7418명이 참여 중이며, 신청률은
2024년 58.5%에서 2025년 68.0%, 올
해 75.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방학 중 초등돌봄 급식은 여
전히 위탁 업체를 통해 도시락을
구매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 이와 달리 도내 병설유치
원은 2014년 노사 합의로 방학 중
에도 급식을 제공한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유치원생은 급식을, 초등
학생은 도시락을 먹는 정반대의 상
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차이를 두고 김송아 조천초
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장”이라고 꼬집

었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에 나선
김 회장은 “제주에는 타 지역과 달
리 학교 급식 종사자의 상시 근무
전환이 이뤄졌다. 이미 존재하는
학교 급식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학생들의 돌봄과 급식에 연결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돌
봄 급식 시행 방안에 대해선 병설
유치원이 운영되는 작은 규모의 학
교부터 시작해 보자는 의견을 냈다.

고길철 평대초등학교 교장은 “저
도 (돌봄교실) 학생과 학부모님에
게 ‘저희는 왜 도시락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겨울철에는 제가
보기에 너무 안쓰럽다”면서도 문
제 해결이 간단치 않다고 진단했
다. “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급식
량 업무, 조리, 배식, 위생 관리, 행
정 사고 발생 문제 등을 종합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방학 중 돌봄 급식에 대한 요구
에도 이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특히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시
행된 상시 근무 체계가 방학 중 돌
봄 급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취지는 높은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인력 채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현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
합 제주지부장은 “방학 중 돌봄 급
식이 마치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하
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고, 법적
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
지부장은 이번 토론회에 교육청을
대표하는 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방학 중 돌봄 급식
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이
책임지고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드
는 게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은 쏙 빠져 있다”며 “서로 다
른 이해 관계와 요구들로 대립하는
모습으로만 보이는 게 굉장히 우려
스럽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하얀 깃털 희귀 ‘왜가리’ 제주서 포착

3일 행원리 해안가서 발견

제주에서 깃털이 하얗게 변하는
‘루시즘’ 증상을 보이는 왜가리가
발견됐다.

지난 4일 다큐제주 오승묵 감독
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에서 흰색 깃털
을 가진 왜가리가 발견됐다.

이 개체는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털, 피부, 깃털 등이 부분적인 색
소 소실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백
변증, 즉 ‘루시즘’ 증상으로 추정
된다.



오 감독은 “올해 태어난 어린 왜
가리로 추정된다”며 “같은 해에 태
어난 다른 어린 개체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색상 차이를 보인다”
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둔다

제주도교육청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안 공개

공보담당관 개편... 도의회 등과의 협력 기능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 1월
조직 개편으로 교육감 직속 ‘교육
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 현재
교육감 직속 기구인 ‘공보담당관’
은 ‘소통협력관’으로 달라지며, 기
존 안전국과 행정국은 ‘행정안전
국’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공약했던 ‘4·3교
육과’도 신설된다.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 단행은 목표로 하는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이같이 정
해졌다.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6과
64담당 체계가 1실 2국 3담당관 14
과 1추진단 68담당 체계로 개편된
다. 이와 맞물려 교육청 정원은 한
시기구(학교지원정책추진단) 8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증원된다.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실무·현장
지원 기능의 강화다. 내년 12월까
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지원
정책추진단’을 설치한 데에도 이런
방향성이 반영됐다. 추진단은 2028
년 학교지원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실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교육감 보좌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은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관’과 ‘소통협력관’을 두기로
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
활동 침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조직으로 신설

된다.
소통협력관은 기존 ‘공보담당
관’을 대신해 공보 기능에 협력 기
능까지 갖추게 된다. 도의회와 지
자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기능
을 맡게 되는데, 교육감이 직접 교
육 정책에 대한 소통 업무를 챙기
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앞
서 고 교육감이 임기 내 정부부교
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
큼,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교육
감 직속으로 협력 기능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새 조
직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
행한다. 이후 법제심의, 제주도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중국 청년 일상 잇는다”

내달 20일까지 솟품 공모전

제주와 중국 청년들의 일상을 연결
할 솟품 공모전이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공공외교 역량강화대
학 지원사업단은 10월 20일까지
‘2026 한중 청년 공공외교 솟품 공모
전’을 진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모 부문은 중국 친구에게 소개
하는 제주의 일상과 한국 친구에게
소개하는 중국의 일상 등 2개 부문
이다. 제주와 중국에서의 일상은 물
론 해양, 생태, 생활문화 등을 소개
하는 60~90초 이내 세로형 솟품 콘
텐츠라면 응모할 수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20~34세)은 누구나
국적으로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단은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
상 각 1팀씩, 모두 4팀을 선정해 시
상할 예정이다. 1팀 당 상금은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이다. 공모
전에 대한 문의와 작품 접수는 이
메일(kodaseul@jejunu.ac.kr)로
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벌초하는 일가족 5일 제주시 공설운동장모지를 찾은 후손들이 조상묘를 깨끗이 벌초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교육감은 ‘전일제 전환’ 약속 지켜야”

돌봄전담사들 4일 결의대회

도내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
지부 소속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교육감이 되기 전, 노동조합
과의 정책협약으로 전일제 전환을
약속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러
나 지금 돌아오는 것은 기나긴 침묵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은기자

“혼저 읍서예,
절로 가땀 힐링하땀!”

2026 walking
불교전통문화 체험한마당

절로가는 길

일 시: 2026년 9월 13일(일요일) 오전 11시~오후6시
전시회는 9월 12일~13일(2일간)

장 소: 평화통일불사리탑사 일원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884)

참가대상: 제주도민, 어린이, 관광객, 외국인 누구나

참가비: 무료

셔틀버스운영: 제주시 공설운동장 시계탑 ↔
조천 불사리탑사 행사장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어린이들에게는 비누놀이, 비행기, 물총 등 선물도 있어요.

※ 무료 점심공양(오전 11시30분~오후 1시까지)

체험 프로그램

석탑 품은 불사리탑사 걷기명상 꼬라돌기 | 시타르 음악명상 힐링하기 |
무아의 합장과 치유무용 | 나만의 108염주 만들기 | 호안석 21단주 만들기 |
쪽물 스카프 천연염색 체험 | 오방색 매듭팔찌 만들기 | 천연향낭 만들기 |
지화 만들기 체험 | 한방 수제비누 만들기 | 민화 걸러링

전시 프로그램

고려진품문화재 청동촉대·금동불 전시 | 로천 김대규 한국화가 초대전 |
제주전통지화전시회(백제사 자광회 전통지화연구회 회원전) |
유인택 제주불교 화첩기행 수채화전

부대 행사

민예·공예품 바자장터 | 신나는 어린이·가족 레크레이션 |
푸짐한 경품추첨 | 힐링콘서트 한마당 | 김대규 춤과 대포 퍼포먼스 |
제주시니어모텔협회 한국화 갈옷패션쇼 | 푸드트럭

주최_제주특별자치도 주관_제주불교신문 문의_064-755-2203